

# 2052년 광주·전남 1인가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호남통계청 1인 가구 변화상 발표  
2023년 광주 36.5%·전남37.1%  
광주 29세 ↓·전남 70세 ↑ 많아  
‘질병 등 건강악화시 돌봄’ 걱정

지속된 저출산·고령화에 오는 2052년에는 광주·전남 1인가구 중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가구의 가장 큰 지출 부담은 ‘식비’며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향후에도 혼자 살 계획을 가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 1인가구는 22만 8,970가구로 전체(56만 7,157가구) 중 36.5%를 차지했다. 전남은 전체 79만 3,249 중 37.1%인 29만 4,583가구가 혼자 살고 있다. 두 지역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대비 각각 7.7%·6.7%씩 늘었다.

연령대별로 광주는 29세 이하가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17.1%) △70세 이상(17.0%) △60대(16.2%) △50대(15.6%)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은 70세 이상이 32.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60대(20.1%) △50대(16.7%) △40대(10.5%) △30대(10.5%) 등 고령 순으로 비중이 커 29세 이하는 10.2%에 불과했다.

광주는 오는 2032년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겨 2052년에는 42.5%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전남 또한 같은해 40%를 넘기고 4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52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광주 56.4%·전남 71.8%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예상된다.

이들의 생활비는 69%가 본인 스스로 마련중이다. 기초생계급여 등 공적 지원 비중은 16.5%·22.8%며 7.8%·6.9%는 자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32.3%·47.1%가 ‘식비’를 손꼽았다. 이어 의료비·주거비 순서로 부담이 컸다.

1인가구 중 84.45%는 향후에도 혼자 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1인 생활을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광주 51.2%·전남 40.7%가 ‘질병·건강 악화시 돌봄 문제’를 손꼽았다.

1인가구가 가장 크게 바라는 지원정책은 ‘주택’ 안정으로 10가구 중 약 3.5가구가 선택했다. 이어 건강 증진, 돌봄·심리 정서적 서비스 등 순서로 나타났다. **홍승현 기자**



조달청은 지난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시즌2’의 두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 조달청장, 중기 생산현장 점검 애로사항 청취

규제 리셋방안·제도개선 등 논의  
“기업 판로확대 현장 플랫폼 강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시즌2’의 두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에서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1일 지역파트너십 매니저가 되어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1 구매매칭 상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및 규제리셋과제·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 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 대화도 진행했다.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올타리 표준화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임기근 청장은 “저출생·탄소중립 등 전략조달과 공공조달 제값주는 25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과 “건의된 모든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피드백 할 것”을 약속했다.

속했다.

이어 임 청장은 광주·전남 우수·혁신제품기업 10개사와 관내 주요 공공기관 15개사가 참가한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 행사에 참석해 ㈜다원디앤에스의 ‘홀몸어르신 고독사 방지 솔루션’ 등 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공공기관에 홍보 및 매칭하는 1:1 구매 상담회를 지원했다.

또 장성군에 소재한 우수제품 제조업체 (주)그나텍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안정을 이끄는 민생조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가 공공조달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전남TP, 말레이시아 국제해양·항공전 참석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  
HDPE 이용 친환경 어선 개발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25)’에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자들이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LIMA25는 25개국·5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해양·항공분야 전시회다.

전남TP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벤처부와 전남도(목포·여수·영암)의 지원을 받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FRP 어선을 대체할 수 있는 HDPE를 이용한 친환경 어선을 개발중이다. 이번 행사 참가는 HDPE선박시장 확대를 위한 동남아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구사업자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린선박기술은 HDPE 선박설계기업이다. 말레이시아 현지 HDPE 보트 생산기업인 ‘V&W Defence’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한 6미터급

보트와 HDPE 판재를 이용한 15m급 해양경비정의 축소 모형을 전시했다. 12m급 소방정, 10m급 해군출동정, 8m급 세관정 등도 선보였다.

배이산업㈜은 HDPE 선박의 설계 및 제조사로 자체 개발한 6미터급 RHB600모형을 선보였고 한국에서 HDPE 재질로 레저 선박과 구조정, 경비정 등 특수목적선을 제조할 수 있음을 관람객과 정부기관에 소개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중부 사령부 DATO ‘MOHD SOFI BIN MD LEP1’장군이 지난 21일 전시장을 방문해 HDPE 친환경 선박을 살펴보고 한국-말레이시아 기업간의 공동개발을 통한 향후 친환경 HDPE 특수목적선과 목선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확대·보급 노력을 당부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소형 선박산업의 기술중심 해외사업화 모델이 구축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HDPE 선박관련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광주연구특구, 대·중견기업 교류 활성화 도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광주연구특구)는 지난 21일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대·중견기업 연계 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 얼라이언스는 지역 소재 대·중견기업의 실증 기술·연구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한 창업기업 또는 연구자를 연계해 R&D를 기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소재 대·중견기업의 수요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 5개 기업(기아·글로벌모터스·대우에이텍·한국알프스·DH오토웨어)과 인공지능(AI) 융합 분야의 5개 기업(나눔테크·DH글로벌·브이원텍·알파뉴스·에이직랜드)이 참여했다.

광주연구특구는 딥테크 사업화 활성화를 목

적으로 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신뢰도 확보와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대·중견기업 연계 실증을 기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특구는 수요 발굴 협의회 개최, 공동 연구개발 상담 지원, 실증 수요 매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실증 기획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경 광주연구특구본부장은 “딥테크를 보유한 연구자·창업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대·중견기업의 시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실증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파숨희망 금융지원 협약보증 광주신보, 75억원 규모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파숨희망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통해 총 7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사회적 약자 계층 대상 대폭적인 우대 방향으로 기획됐다. 지원 금액 최대 5,000만원, 상환 방식 최대 7년으로 이번 보증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증금액 우대, 보증료율 인하로 일반 보증에 비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례보증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직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순환로 128번길 73 (중앙동 1153-14)